

'94 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유아교육과

조 교수 박 인 학

I. 서 론

최근에 새로운 유형의 대학입시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더욱 늘어난 과열 및 고액 과외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갖은 비리가 폭로되면서 대학 입학 시험제도에 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채택된 기본 목적은 고등학교의 입시 위주의 파행 교육을 탈피하여 보자는데 있었다. 즉, 입시 과목에 대한 암기 위주의 교육은 고등정신기능을 함양시키는데 별 도움이 되지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입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그 동안 파행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바로 세워 보자는 의도가 새 대학입시제도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대학별 본고사를 허용함에 따라 퇴색되고 있다. 이미 '94학년도에 본고사를 채택한 9개교 외에 40여개 학교가 본고사를 채택하기로 선언하고 있어 새 대학입시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

수학능력시험과 대신 성적이 파행으로 치달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라면, 대학별 본고사는 어떤 의미에서 그 정상화를 되돌리게 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마다 다양한 본고사에 대비하여 입시 학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본고사 준비를 위한 고액 과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93년에 2차에 걸쳐 시행한 수학능력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난이도 조정의 실패와 변별력이 과

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의 고교내신성적이 과연 상대적 비교를 할 때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입시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선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치 않는 범위 안에서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여러가지 교육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변화를 겪어 온 제도 중에 하나이며, 대학입시제도 또한 대학교육의 이념과 성격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가 보다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과다에서 빚어진 과열 경쟁과 그로 인해 야기된 교육문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번히 변천되어 왔다.

한편, 대학입시제도는 크게는 대학입시의 관리를 국가에서 하느냐 아니면 대학에서 하느냐에 따라 변천해 왔으며, 그에 수반해서 입시전형방법에 따라 바뀌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방 이후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¹⁾

1. 대학별 단독시험기(1945~1953)

이 시기에는 대학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한 시기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정부는 대학입학시험에 관련된 사항을 대학당국에 일임하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대학당국끼리 협정형식으로 시험과목, 시험시기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시험시기는 전·후기로 나누었으며, 대학이 모집 단위 및 정원책정 규모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운영 및 관리 전반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초기에는 입학 자격자의 절대 부족으로 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이 생겼고, 후기에는 부정입학 및 무자격자의 입학, 정원초과모집 현상 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대학의 공공성 확립과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입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2. 대학입학 연합고사와 대학별 고사의 병행기(1954)

이 해에는 대학별 본고사에 의한 입시 부조리를 제거하고 입학시험의 질적 수준

1) 이정근, 김병주,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위한 소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93-1-123, 1993, PP 2-7.

을 향상시킨다는 의도하에 국가고사를 도입하여 대학별 고사와 병행하여 입학시험을 실시하였다. 전형방법은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자격 고사)와 대학별 필기시험이 채택되었고, 입학 사정은 국가연합고사 합격후 대학별 필기시험의 총점에 따라 이루어 졌다. 그 결과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여학생과 군필자에 대한 국가연합고사 면제의 부당성과, 국가연합고사 후 대학본고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 된다는 점이었다. 이때의 입시제도는 자유경쟁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한 해만에 입시제도를 개혁하였다.

3. 내신제 활용을 통한 대학별 유무 시험 병행기(1955~1961)

국가연합고사제의 실패로, 다시 대학별 유시험·무시험제가 병행되었다. 이는 이전의 대학입시에서 각 대학이 정원을 초과 모집함으로써 정원문제와 함께 국가연합고사가 자유경쟁 체제에 적합치 못하다는 비판이 야기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제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두된데 연유한다. 전형방법은 입학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신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거나, 내신성과 대학별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하였으며, 소수의 대학은 대학진학적성검사를 전형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대학입학교사의 문제점은 대학간의 학력 격차, 정원의 초과 모집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특정 교과에 대한 본고사 실시로 인하여 고교 교육의 비정상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와 부정 입학의 문제점은 입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4. 대학입학자격 국가 고사의 시기(1962~1963)

이 시기에는 부정입학과 무능력자의 입학을 막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선발고사의 성격을 띤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5·16 군사 혁명 이후 고등교육기관을 정비하고, 부정입학등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척결한다는 군사정부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이 제도는 대학입학시험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학의 자율성 침해, 대학간 학력차의 노출 및 정원미달 사태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5. 대학별 단독시험기(1964~1968)

이 시기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하에 대학별 단독 시험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는 이전의 입시제도가 사립대학들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한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학생 선발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거세진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전형 방법으로는 대학별 선발

시험이 채택되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내신성과 진학 적성검사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간 입학시험 기준이 차이가 있고, 대학의 질적 저하와 빈번한 입시 과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고교생들의 입시 준비의 축소(3~4개 과목)로 인한 고교 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하여 입시 제도 개선이 다시 논의되었다.

6. 대학입학 예비고사 본고사 병행기 (1969~1980)

이 시기에는 대학교육 이수의 적격자 선발로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의 불합리한 입시관리 지양 및 대학간 질적 해소와 함께 교육 투자의 낭비를 억제함으로써 국가 인력 수급 정책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 아래 자격 고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 시기에는 입학사정 유형이 (1)예비고사 성적만으로 전형하는 경우, (2)예비고사 성적, 고교내신성적 대학별 고사 성적만으로 전형하는 경우, (3)예비고사 성적과 대학별 고사 성적만으로 전형하는 경우, (4)예비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으로 전형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특별 전형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입시 제도의 문제로 부각된 것은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에 따른 학생수험부담의 가중과 함께 과열 과외, 입시 위주의 교육에 따른 교권 실추, 재수생 누적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점이다.

7.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고교내신성적의 병행기(1981)

이 시기에는 과열 과외의 해소,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의 이중 부담 경감, 고교 생활지도의 개선이라는 취지 아래 대학 입학 예비고사 성적과 고교내신성적에 의해서 입학 전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시제도가 성립된 것은 이전의 입시 제도에서 예비고사 합격 선이 유명무실해지고(응시자의 90%이상 합격), 재수생의 증가가 사회 문제화 되었으며, 대학 본고사가 고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때의 입학전형방법은 대학입학예비고사(50%이상) 와 고교내신성적(20%이상)에 따라 이루어졌고, 고교내신은 3학년 성적만을 반영 하였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대학별 고사 폐지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복수지원으로 인한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였고, 지역간 학교간 격차를 무시한 내신성적과, 고등학교 내의 극심한 경쟁 및 대학의 학생 선발에 관한 자율성이 크게 제한 되었다는 점이다.

8.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성적의 병행기(1982-1985)

이 시기에는 고교 내신성적과 대학입학 학력고사에 의해 입학 전형이 이루어 졌

다. 이는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대학입학학력고사로 명칭을 바꾸어 합격선을 폐지하고, 고교내신성적 산출을 전학년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반영 비율을 30%이상으로 변경한 점을 제외하고는 1982년도 입시와 동일하다.

이 시기에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학력고사의 난이도 유지 문제,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 증가, 입학 정원제로 인한 강제 탈락, 전·후기 모집 대학의 구성 비율 불균형 문제, 극심한 눈치작전 및 배짱 지원, 그리고 학력고사의 고등정신능력 측정 미흡 등이다.

9.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성적 및 논술 고사 병행기 (1986-1987)

이 시기에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장하고 고등정신능력의 측정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학력고사, 내신성적, 논술고사 성적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전의 입시제도에서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극도로 제한되고, 눈치작전, 배짱지원등의 비교육적 현상이 나타났으며, 객관식 일변도의 출제로 암기 위주의 교육이 성행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에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각 대학은 학력고사 성적은 50%이상, 내신 성적 30%이상 반영하고, 논술 고사는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논술고사가 본래의 목표에 비해 그 기능이 미흡하였고, 여전히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침해된다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10.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내신 성적 및 면접의 병행기(1988-1993)

이 시기에는 출제의 일관성과 전문화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지원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 하에 대학입학 학력고사, 내신 성적 및 면접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81년부터 실시되던 전시험 후지원을 선 지원 후시험으로 바꾸었다. 이는 눈치작전, 배짱 지원, 선택형 고사 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 선발에서 대학의 전문적 기회와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데 그 배경이 있다. 이 시기에 대학입학 전형 방법은 대학입학학력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 30%이상 의무 반영, 면접(10%이내)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대입학력고사가 대학의 필요와는 거리가 멀고 적격자 선발에 필요한 전형자료가 충분치 않으며, 대학의 자율성과 융통성이 제한되어 있고, 고교에서 암기 위주, 입시 위주의 교육이 성행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여러번의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이러한 입시제도의 변천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크게 세가지의 성적을 중심으로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학별 고사, 국가고사 및 고교 내신 성적 각각의 합산에 의해 변천해 온 것이다.

대학별 고사의 경우 대학간 입시제도의 차이와, 입시과목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

한 고등학교의 진학지도의 어려움, 수험생의 대학입시준비에 대한 부담 가중, 입시 과목의 축소(3-4과목)로 인한 고교교육의 비정상화, 대학의 입시 관리능력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국가고사의 경우는 학력 격차의 노출, 대학의 학생선발권 침해, 대학간 학력 격차를 무시한 획일적 시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고교내신 성적의 경우는 신뢰성 부족, 고교간 학력 차이에 의한 문제, 등급생간 경쟁의식 조장, 수험생의 부담 증가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번천되어 온 대학입시제도를 살펴보면 특별한 개선책이라기 보다는 대학별 본고사와 국가고사 및 내신성적의 조합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또한 입시 제도의 개선이 노출된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성급하게 이루어졌으며, 사회 여론에 의해 수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즉, 관련 요인들의 개선이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제도 자체만의 개선을 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입시제도 자체의 개선 뿐만 아니라 관련 요인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Ⅲ. '94학년도 대학입시제도와 문제점

A. '94학년도 대학입시제도

명년('94학년도)에 시행된 새 대학입시제도의 골간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내신성적의 두 전형자료를 필수로 하고, 대학의 결정에 따라 본고사(9개교)를 실시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립평가원 주관으로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그중 성적이 나온 것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고교내신성적은 교과성적 80%, 출석성적 10%, 행동발달·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성적 10%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고교 성적은 1학년 성적 20%, 2학년 성적 30%, 3학년 성적 50%의 비율로 산출, 15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간 점수차는 2.5점이다. 출석성적은 5등급으로 나누어 고교 3년간 2일 이내 결석 1등급, 31일 이상 결석 5등급으로 분류되어 1등급은 20점, 5등급은 12점을 배정하였다. 행동발달·특별활동 및 봉사활동 성적도 5등급으로 나누며, 교내외 봉사활동의 경우 학생회장, 부회장이나 학급반장, 부반장, 특별활동 부·차장, 학교선도부원 등을 마친 학생, 환경정화활동, 인명구조, 재산보호활동등으로 표창을 받은 학생에게 1년에 1점씩 가산 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등급간 격차는 대입 총점이 얼마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대입 총점을 500점으로 가정하고 내신성적을 40% 반영할 경우, 점수 배분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별 본고사 300점, 내신성적 총점 200점(교과 160점, 출석 20점, 행동발달 20점)이 된다. 교과 내신의 등급간 점수 차는 2.5점이므로 1등급은 160점, 15등급은 125점이 된다. 각 대학들은 이러한 방식에 의한 고교내신성적을 의무적으로 40%이상 반영해야 한다. 대학별 본고사의 경우 당초에는 전국의 41개 대학에

서 대학별 본고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94학년도 대입시에서 9개교만이 본고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95학년도에는 당초 본고사를 시행하기로 했던 대학 외에도 더 많은 대학들이 본고사를 시행할 전망이다.

대학별 본고사를 주장하는 대학들은 고교 내신성적이 임의평가에 의해 고교 단위 별로 산출되어 학교간 학력차를 무시하는등 신뢰성이 낮으며,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이 적어 선발기능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내신성적등에 의해 전형케 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전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전형 : 일반전형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 자격의 모든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제도로서 주로 인문계 고교출신자가 일반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전형 제도이다.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므로 가장 보편적인 전문대학 지원 제도이다.

2. 특별전형 : 특별전형제도는 특별한 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지원자들 간에만 경쟁하여 입학하는 제도로서, 우선 전형, 정원의 특별 전형, 주·야 특별 전형(기존의 특별 전형)으로 구분된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1) 우선전형(추천입학제) : 이 제도는 고등학교 진로지도 교사의 지도를 거쳐 처음부터 전문대학을 우선적으로 소신 지원하는 자를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기(전문대학 전기입시시기)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제도이다.

2) 특별전형(주·야간별 특별전형) : 특별전형은 실업계 고교 및 예체능계 고교 졸업자들이 동일계 전문대학에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계속교육을 통한 질적 교육기회 향상을 도모하며, 성인 및 산업체 근무자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형방법이다.

3) 정원의 특별전형 : 이 전형의 대상은 크게 2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전문대학에 다시 지원하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특약에 의한 위탁 교육이 있는 경우이다.

전문대학 학력 이상자의 정원의 특별전형은 졸업자가 직업 전환 또는 신 직종의 기술 습득 및 새로운 자격 취득을 위하여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이다.

위탁교육에 의한 정원의 특별전형은 군 위탁교육제 및 산업체 위탁 교육제도와 같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또는 사업체)에서 특정교육의뢰가 있는 경우 이를 전문대학에서 별도 정원제로 수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전형 종류별 지원 대상 및 전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전형 : 일반전형의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 및 대입 검정고시 합격자 등이며 전형 방법은 고교내신성적 40%이상 반영(필수 사항), 전문 대학별, 학과별 특성에 맞는 전형방법(대학자율결정), 전문대학별 고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2 과목이내 실시.

2) 우선전형(추천입학제) : 이 전형 종류는 '94학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대상은 고등학교 내신성적 1 ~ 5등급 해당자로서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로서 모집 인원은 주야간별,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내 대학자율결정에 의해 전형할 수 있으며 신설 취지는 소신지원생의 입시부담해소와 전문대학의 입시업무 부담 경감 및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있다.

3) 주간특별전형 : 전형 대상은 실업계 및 예체능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학과 진학자(고등학교 학과와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결정은 대학이 자율결정), 지방 학과와 관련이 있는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 취득자(자격증과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결정은 대학자율결정), 예체능 특기자(국립평가원에서 심사·선발된자)이며, 모집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30%이내이며, 전형 방법은 대학 자율결정에 따른다.

4) 야간특별전형 : 대상은 고교졸업후 해당입학학년도 개시일(3.1)이전까지 18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실업계 고교출신자로서 학장이 정하는 동일계학과 지원자 또는 기능사 2급이상 자격중소지자로서 학장이 정하는 관련 학과 지원자)이며, 모집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50%이상이며, 전형방법은 대학 자율결정토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산업체의 범위는 ①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 단체, ②교육법 제 81조에 규정된 학교, ③공보처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국, ④감독 관청에 등록된 학원(사설 강습소), ⑤상시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근로기준법 제4조), ⑥의료 기관, ⑦영농 종사자(읍, 면 및 동장 발행 증명서 첨부)

5) 정원의 특별전형(신설) : 대상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신입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자, 위탁 학생 및 외교관 자녀등의 입학자이며, 모집인원은 주야간 별 입학정원의 10%이내, 위탁 학생 및 외교관 자녀 등의 입학자는 제한이 없으며, 전형방법은 대학별 자율 결정토록 되어 있다. 한편 입학시험 시기는 대학별 자율 결정토록 되어 있다.

B. '94학년도 입시 제도의 문제점

'94학년도 대학입시제도는 '93학년도 입시까지 시행되어 왔던 입시제도를 개선한 것이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여전히 과열 고액과외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²⁾ 고교내신성적에서 더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한 과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과외, 본

고사 실시에 대비한 과외등 수험생들이 전보다 더 많은 과외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고교생들의 과중한 입시부담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적성발전 및 개발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과외비 마련을 위한 각종 비리 발생의 소지를 제공해 준다.

둘째, 과도한 입시경쟁과 그로 인한 다수 학생의 탈락문제이다. 탈락자의 대부분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며 교육정책을 비판하게 된다. 또한 각종 범죄의 유혹에 빠질 우려도 있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교과목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과목간의 불일치로 고교교육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을 중시할 것인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수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갈등을 겪게 되며, 본고사 실시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전문대학입시 전형에 있어서 우선전형의 경우 내신등급만으로(5등급이내) 전형케 되어 있어 내신등급의 불신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없으며, 정원의 전형(정원의 10%이내)방법은 기존대학에 대한 불신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시설이나 교수 충원 없이 정원만 늘려주는 결과로 인해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고교때의 계열을 무시한 전형방법은 극심한 눈치작전과 입학후 계열이 다른 학과에 지원한 학생은 수학능력에 많은 애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IV. 요약 및 결론

A. 요약

본 연구는 '94학년도 대학입시제도를 분석,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입시제도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열 고액과외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대학(4년제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대학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에 의한 진학희망자가 적어질 경우 다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2. 고교내신성적이나 학력검사만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는 과열

2) 최근들어 과외와 학원수강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서울대 신입생 중 과외 경험자는 '91학년도에 25%, '92학년도에 51%, '93학년도에 62%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의의 원인이 대학별 본고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고교교육과정 내에서의 학력검사 및 내신성적만으로 입학전형을 함으로써 대학별 본고사로 인해 야기되는 과외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할 때 내신성적이나 학력검사를 위한 과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3. 전면적인 과외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과 더불어 비밀 고액과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둘째, 과도한 입시경쟁과 그로인한 탈락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1. 비정규대학과정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통신대학, 개방대학의 입학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할 수 있으며 직장인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의 제공으로 정규대학의 입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평생교육체제의 확립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규대학에 대한 선호 및 사회적 인식에 문제가 이를 해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2. 조기 진로지도를 통한 대학진학 희망자의 축소가 필요하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없거나 대학수학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을 위하여 고등학교 저학년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확고하게 정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진학반과 취업반을 구분하여 적성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 조기 진로지도를 통해 자기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진학 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기 진로지도의 방안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말에 단위 고등학교별로 적성검사 또는 학력검사를 통해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등의 계열선택을 하게 하고 2학년말에는 시·도별 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여 진학반과 취업반으로 구분하여, 취업반에 배정된 학생에게는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이다.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교내신성적만으로 대학입학자를 선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권을 제약하는 측면과 함께 대학이나 학과의 필요성에 의한 학생선발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현행 고교간 학력격차를 무시한 일률적인 내신성적 산출의 문제점의 보완을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대학 입시전형 문제점 해결방안이다.

고교때의 계열이 무시됨으로 인하여 입학후 해당계열이 아닌 학생이 수학능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계열별 가중치를 두어 전형하게 함으로써 수학능력에 지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야간 특별전형의 경우 일반전형과의 수학능력고사의 점수가 큰차이가 있어 입학후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의 점수 격차로 인해 정규수업에 많은 애로점이 야기될 수 있어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반편성을 달리하여 능력에 맞는 정규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원의 특별전형은 인기학과에만 학생의 지원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전체적으로 입학성적에

는 일반전형과 별차이가 없었다.³⁾ 이는 일부학과와 중원효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정원의 확대에 교육여건만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의 대책이 요구된다.

B. 결 론

아무리 훌륭한 입시제도 개혁방안이 나온다 해도 우리의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기대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현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란 곤란하다. 입시제도의 개혁안을 한 두번 시행해보고 재차 개혁을 논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금번의 입시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입시제도의 개혁보다는 관련 요인들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4년제 대학의 정원은 증원의 폭을 줄이는 대신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의 정원을 확대하여 평생교육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인문계 고등학교학생중 비진학자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킬 수 있도록 실업계 고등학교 및 각종 직업훈련원등과의 연계교육을 모색해야만 한다.

셋째, 내신성적의 신뢰성을 극복하고 수학능력고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등학교 학생의 학력관리 기관을 전문화 시켜야 한다.

넷째, 전문대학의 입시전형방법은 현행대로의 골격을 유지하되 정원의 특별전형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입시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시대행기관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더불어, 학생의 선발권은 대학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영철외, 입시제도 비교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0
2. 김종철, 한국 고등교육연구, 서울:배영사, 1979
3. 김종철,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교육과학사, 1990
4. 박도순.장석우.강무섭.신동진,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한국대학교육협의회,1989
5. 윤정일.송기창.조동섭.김병주.유명혜, 한국의 교육정책, 서울:교육과학사, 1991
6. 이정근.김병주,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위한 소고, 서울: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3
7. 이종승.박도순.장석우.김병주, 대학별 고사의 출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

3) 광주보건전문대학, 94학년도 신입생 입학 사정 자료 분석 결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8.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새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학별 본고사의 시행 방안(세미나 보고서),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1

A study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n 1994

Park, In-hak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wangju Health College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problems of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n 1994.

In order to accomplish the above objectives, this researcher referred to sundry records of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nd analysed problems of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n 1994.

From this analysis ,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

1. The regular staff of the college must be diminished , the regular staff of the junior college and the open university must be enlarged, and the education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2. Non-matriculants must be established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t huminities high school.
3.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a high school records and the ability of a receiving instruction, the management of the school records must be controlled in the professional institution.
4. The matriculation system of the junior college must be maintenanced as current system, but the matriculation besides a regular staff must be improved.
5. In order to improve many problems of the matriculation system, the Ministry of Education must be managed the proxy institution of a entrance examination for some time, the student's option must be given to the college.